

PwC Korea Insight Flash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August 2022



삼일회계법인



Key Takeaways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BBBA(국가재건법안)의 축소·수정판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8월 16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법안의 시행에 따라 경제 및 산업·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IRA 법안 개요

취지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물가 억제)는 것이 IRA의 기본 구상

현황

8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새로운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되었음.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임.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370억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370억(910조원)

[BBB 및 IRA 법안 비교] IRA는 바이든 대선공약인 BBB의 축소,수정판

구분	BBBA(국가재건법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액	\$5,550억	\$3,690억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50~52%	4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를 통한 전기사용, 친환경차 및 건물, 산업 탈탄소화 등 약 \$3,000억 지원 및 세액공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 소득층, 중고 전기차 구매 시 \$4,000달러 세액공제 •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
탄소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금융기관 지원 위한 온실가스 감축펀드(Clean Energy Accelerator/Green Bank)대상 약 \$290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에너지 전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하는 청정에너지^{주)} 기술 Accelerator 대상 \$270억 지원
친환경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가정 리베이트 \$120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가정 리베이트 \$90억 지원
친환경 운송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운송수단 대체를 위한 \$50억 지원 및 세액공제 • 항구 인근지역 친환경 장비 도입 위해 \$30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 위해 \$10억 지원 • 항구 인근지역 친환경 장비 도입 위해 \$30억 지원
에너지 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에너지효율 위해 \$20억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에너지효율 위해 \$10억 보조금 지급

자료: 언론보도

주1) 청정수소 관련 내용(BBB 법안포함 내용과 유사): 수소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에 따라 세액공제 크레딧 차등 적용. 수소 1kg당 \$0.6~\$3.0 수준

➡ '청정수소의 개편 및 기준을 확실히 정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

2. IRA 법안의 목적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역량을 제고 목적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Value chain의 미국 내 확보
→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전성 확보, 자국 내 생산 및 판매 장려 등

중국을 겨냥한 정책

- 장기적으로 2차전지에 필요한 광물은 80%('24년 40%부터 매년 10% 상향), 부품은 100%('23년 50%부터) 미국 및 미국FTA 국가^{주2)}에서 만들어야 \$7,500의 보조금(광물 \$3,750 + 부품 \$3,750,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23년 이후)과 채굴·제련·리사이클된 광물('24년 이후)을 포함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함.

주2) 미국과 FTA 체결 20개국

구분	미국과 FTA 체결 국가
주요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한국
기타 국가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공화국, 오만, 파나마, 싱가포르

3. IRA 법안의 주요 내용 (1)

향후 10년 간 약 \$7,370억의 세수를 유입(추가 재정 확보)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70억 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약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 포함됨.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 임.

[IRA 법안 주요 정책 점검]



에너지 안보·기후 정책

-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신규·중고 전기차 세금 리베이트 제공)
 - 신규 \$7,500 (연 과세소득 개인 \$15만, 부부 \$30만 이하)
 - 중고 \$4,000 (연 과세소득 개인 \$7.5만, 부부 \$15만 이하)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on-shoring 생산세액 공제,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관련
- 교통버스·쓰레기 수거 차량 등 대형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확대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 연 매출 \$10억 이상인 대기업(약 150개)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계획
- 약 \$3,130억 추가 세수 유입 가능 예상
- 펀드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40억 감세 혜택 유지
-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의 세금 부과 계획
➔ \$1,000억 규모의 세수 유입 기대



헬스케어 정책

- 주 내용: 약가 인하와 '22년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3년 연장
 -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완화: 연간 상한을 \$2,000로 설정
 - 오바마 케어(ACA 법안) 지원 연장: \$640억 투입 예정

3. IRA 법안의 주요 내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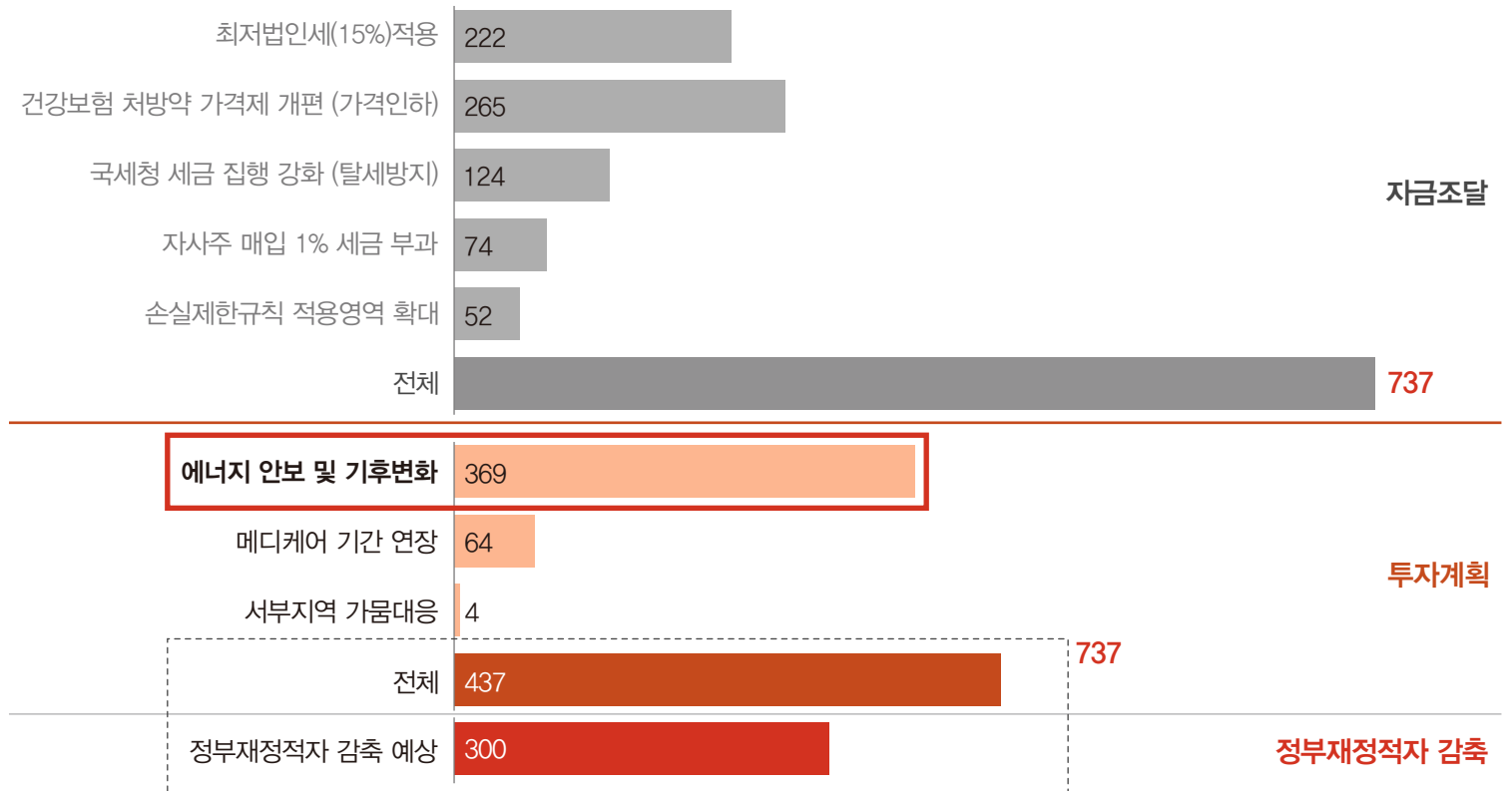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이 할당, '23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임.

IRA of 2022, 세부 투자계획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절반(49.9%) 할당

단위: 십억 \$

자료: 상원 민주당(US Senate Democrats)



3. IRA 법안의 주요 내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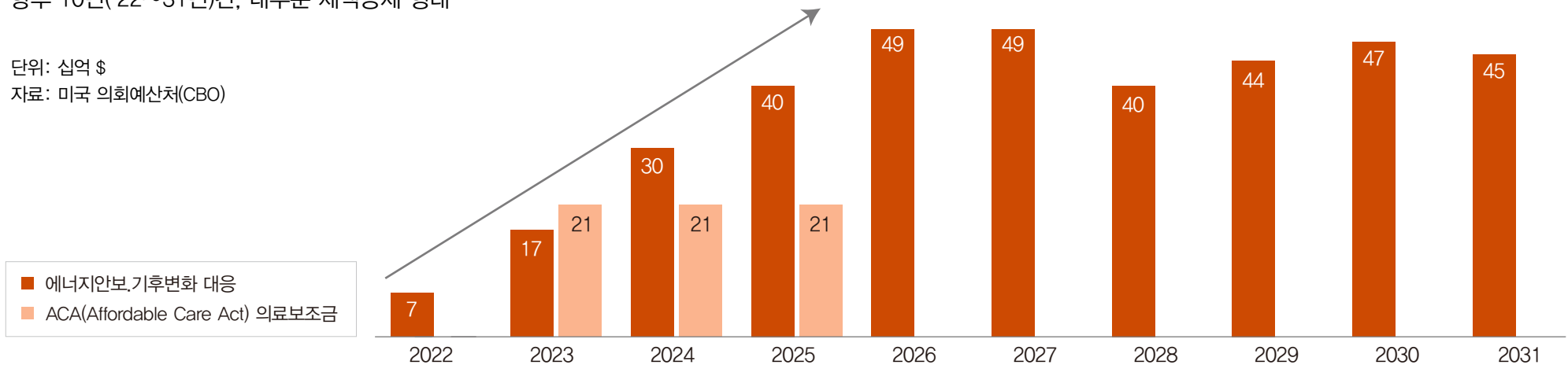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 ① 친환경 에너지 지원의 2/3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 ②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대부분 정부 주도의 공제혜택은 연 단위 갱신되는 경향) → 장기 인센티브 보장으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유인 가능성 높음.
- ③ 태양광의 경우 민간 및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임.

IRA 에너지 관련투자, 집행 시기와 형태

향후 10년('22~'31년)간, 대부분 세액공제 형태

단위: 십억 \$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참고] 친환경 부문 주요 내용

- 1) Lower Consumer Energy Costs(소비자비용 절감): ①민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 전기 난방 등) 세액공제, ②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 2) Energy Security & Manufacturing(에너지 안보위한 제조업 지원): ①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관련(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생산 등) 세액공제, ②제조시설 친환경 발전 설치 세액공제, ③ 전기차 생산업체 지원금

4. IRA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

美 거시경제 측면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3,000억 계획으로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 된다는 것 이외에 물가, 성장률 등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물가: 소비자 의료비용 절감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상승의 원인이 에너지, 식품 등이기 때문에 영향 미미 예상
- 성장: 최저법인세 시행으로 투자 저해요인 작용되나, 기업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행대비 -0.4 ~ -0.5% 수준으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정치적으로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美 제조업 활성화, 기후대응 등 과제의 일부분 달성한다는 의미 있음.

美 산업 및 제품 측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헬스케어 관련 산업

다만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므로 **신규 세액공제 혜택 산업 및 제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ex)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 전기차 제조(완성차), 2차전지 관련 부품·소재산업

[신규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제품]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등



풍력
블레이드, 나셀(Nacelles), 타워, 해상풍력 플랫폼 등



2차전지(배터리)
전극활물질, 셀, 모듈



2차전지 관련 핵심광물 (희유금속)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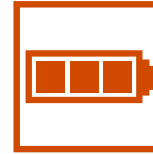
4. IRA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산업/업체 (1)



(장기) 긍정적
(중단기) 부정적

완성차(전기차) 업체

- 미국 전기차 시장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한국 완성차에게는 기회 요인은 분명함.
 - ① 차량 가격 제한으로 테슬라, 벤츠, BMW, 아우디 등 경쟁사 모델의 상당수가 보조금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 특히 고급차의 경우 향후에 보조금 가격 상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임.
 - ② 가구 소득 개인 \$15만, 부부 합산 \$30만 기준 적용 시, 소득 상위 4~19%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Mass market 브랜드에 보조금 혜택 집중될 가능성 높음.
 - ③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단기적으로 부품 단위로 수출 후 최종 차량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방식(Knock Down)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 있음.
- 다만 IRA통과로 EV(전기차) 세제혜택의 상한(제조업체당 20만대 한도)이 사라졌지만 각종 제약조건으로 실질 세제 혜택 규모는 향후 수년에 걸쳐 과거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 ex) 제조업체당 20만대 한도 소멸로 그 이상 판매하던 Tesla와 GM 등 수혜.
 - 반대로 현대/기아차, '23년부터 국내 생산 EV의 보조금 혜택 소멸됨에 따라 미국 EV 시장 점유율 축소 가능성 높음



(중장기) 긍정적
(단기) 부정적

2차전지 업체

- 한국 2차전지 3사의 경우는 수혜/피해 동시 존재
 - 장기적으로 CATL 등 중국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수혜가 예상
 - *한국 배터리 3사 외에 미국 내 생산시설 보유한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현재 규모 약 40GWh에 불과)이 유일: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on이 발표한 중장기 미국 내 생산능력 합산은 약 380GWh이고, 이는 전기차 대수로 환산 시 약 420만대 규모
 - 다만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거나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짐. 공급망 구축 세액 공제 대상을 미국내 구축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의 투자 및 향후 미국인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으로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있음. 또한 안정적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현지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직접적 해외 광산 투자 등으로 탄소중립 비용이 오히려 증가 가능성 높음.
 - 문제는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마찰 비용 발생은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요 부담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
 - ②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니켈을 제외한 핵심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임.

4. IRA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산업/업체 (2)



긍정적

신재생에너지 업체

- 기존 재생에너지 지원정책(보조금 등) 일몰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
- 태양광, 풍력, 수소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동시에 미국 내 제조설비를 보유한 기업(한화솔루션)의 경우는 세액공제 및 우선 사용 등 혜택이 집중되면서 외형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전망.



다소 긍정적

철강(강관) 업체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생산 및 운송을 위한 인프라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

- ➔ 미국내 파이프라인, 가스 액화 및 저장 설비, 해상 운송을 위한 터미널 등의 건설 확대로 이어져 에너지용 강관 수요 확대를 견인할 전망.



중립

제약/바이오 산업

- 국내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R&D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즉, 고령화 인구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에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약가 인하로 인한 글로벌 빅 파마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존재
 - ➔ 높은 개발 비용이 필요한 질환(자가면역,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개발동력 약화 우려
 - ➔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R&D 투자 감소 가능성 높음(국내 업체의 경우는 빅 파마와의 기술거래를 통해 글로벌 R&D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21년 기준 빅 파마 14개사의 기술거래 총 계약금액 \$613억 수준)
- 다만, 빅 파마들의 소송 진행으로 실제 법안 시행은 지연,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환자의 경제성 개선에는 긍정적

S/N: 2208W-RP-030

© 2022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